

山林經營會報

發行人：韓 榮 錫
 主 幹：崔 東 均
 發行處：韓國山林經營者協會
 住 所：서울 麻浦區 桃花洞 18-2
 서울대학교 동창회관 409호
 電 話：702-4301

林野 不動產投機 對策 時急하다

去來件數 84 %가 林野 一88上半期 申告地域
 地價上昇, 小面積分割로 限界林地늘어나
 經營아에 포기, 地價上昇期待心埋만 一 기왕의 山主

不動產의 投機가 問題되어 온것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그러나 最近의 通貨膨脹과 物價不安에 따른 換物心理로 過去의 아파트나 田畓中心의 投機에서 林野中心의 投機로 한층더 현저히 확산되고 있음을 우리는 注目하지 않을수 없다.

山林經營도 土地利用産業이라는 점에서 저렴한 땅값과 낮은地代를 바탕으로 經濟的 原理에 立脚한 生産費 節減을 期해야 함은 너무나 기초적 상식이다. 더구나 山林經營은 資本의 회임기간이 길다는 構造的 취약점이 있음을 前提할때 地代가 저렴해야 됨은 더더욱 두말할 나위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근자의 會社의 추세는 林野中心의 不動產投機가 全國的으로 擴散되고 있음에 대하여 우리는 우려를 금치 못하는 바이다.

가뜩이나 山林經營所得이 없어 난감하고 돌파구를 찾지못하고 아무런 대책이 없는 이 판국에 투기심리만 팽배해진다면 山林經營이란 아예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기왕의 山主들은 山林을 가꾸기 보다는 地價上昇만을 바라고 있을것이고 (이미 그런 狀況이지만) 投機꾼들의 손에 넘어가는 山林은 여러 측면에서 문제가 있겠지만 山林經營 측면에서만 생각하더라도 “放置山林” 바로 그것일 것이다.

最近 當局에서 調査된 資料에 의하면 87年末 현재 全國의 私有林은 4,674 ha, 所有者數는 1,948千名으로 이중 不在山主數는 665千名으로 全体山主의 34.2%를 점하고 있고 그所有面積은 1,986千ha로서 全体私有林의 42.5%를 占하고 있다.

不在山主數는 71년에 16%였던것이 87년에 34%로 증가하였고 所有面積比도 71년에 21%였던것이 87년에는 43%로 증가하여 不在山主數나 그 面積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을 잘 나타내고 있다.

1人平均 所有規模도 所在山主는 2.1ha에 비하여 不在山主는 3.0ha이며 100ha 以上되는 대규모 山主現況도 총 2,582명중 所在山主가 35%, 不在山主가 64%로 不在山主가 월등히 많은 실정이다.

물론 山林經營은 一般農地에서의 不在地主와는 달리 꼭 所在山主라야 할 必要는 없고 또 영세한 농촌所在山主에 山林投資를 期待하기 보다는 都市資本의 農山村流入이 바람직스럽기는 하더라도 不在山主가 首道圈으로부터 가까울수록 많다는 것은(例, 京畿 : 46%, 全北 : 29%) 山林經營目的보다는 單純 投機에 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 어렵지 않아서 큰 우려를 낳게하고 있다. 土地去來에 있어서도 林野去來가 主流를 形成하여 土地去來申告地域의 경우 林野去來가 全体去來의 84%를 占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林地價도 一般農地價보다 上廻하고 있음은 林野에 投機性資金이 集中되고 있는 경향임을 알수 있다.

이와같이 林野에 投機가 성행할 경우 國家經濟的인 측면을 떠나서라도 林業經營 側面에서 볼때 經營基盤의 萎縮이 불가피하고 經營規模가 가뜩이나 零細하여 問題되고 있는 상황에 小面積分割에 따른 林野細分化 保進이 加速化되어 經營不可能한 限界林地가 增加될것임은 자명한 일이다.

그 以外에도 地價양등에 따른 부담은 林産原價上昇으로 林業의 長期安定性이 沮害될 것임은 물론이다. 當局은 이의 對策을 爲하여 研究檢討되고 있는 것으로 알지만 하루 속히 經營目的의 所有制度가 確立되어 實需要者에게 被害가 없고 山林經營에 의한 所得을 期할수 있도록 시급한 綜合대책이 있어야 하겠다.

제 12회 育林의 날 맞 아

- 全國 機關 . 단체별로 育林作業 實施 -

山林廳은 11月 5일이 열두번째 맞이하는 育林의 날로서 이날부터 1週日間을 育林週刊으로 정하고 汎國民 運動으로 山地의 資源化와 快適한 國土景觀造成을 위한 育林作業을 促進키로 하였다.

이 期間中 全國的으로 機關, 團體, 마을單位로 總 46,585 機關에서 3,159 千名이 參與하여 봄에 심은나무 63 천ha에 肥料주기, 가지치기, 잡목숙아내기등 育林作業을 實施할 計劃이다.

盧健一山林廳長은 “그동안 온國民이 舍心勞力하여 많은 나무를 심고 가꾸어온 結果 어디를 가나 푸른산으로 國土綠化에는 成功하였으나, 산은 푸르게 가꾸는 것만이 全部가 아니고 國土의 3분의 2인 山地를 經濟林으로 잘 가꾸어 國家資源을 蓄積함으로써 山林所得을 높이고, 울창한 숲을 통해 快適한 生活環境을 造成함으로써 經濟的 機能과 公益的 機能을 增進시키는데 있다고 強調하면서, 造林과 育林을 連繫시켜 山林資源을 着實히 造成해나가고 있다”고 밝히고,

그러나 育林이 뒤따르지 않으면 造林成果를 期待할 수 없는 것이며 過去速成綠化爲 主의 造林方向에서 收益性爲主의 經濟林業으로 轉換하기 위하여 造林과 育林을 連繫시켜 명실상부한 山地資源化를 구현코자 하는 것이 “育林의 날”이 갖는 참뜻임을 상기시키면서, 全國土의 66%인 山林을 가꾸는데는 山主나 山林公務員의 힘만으로는 매우 어려운 일이므로 育林週刊을 맞아 山地의 資源化와 快適한 生活環境造成을 위하여 산에 심은나무는 물론 집안팎등 生活周邊의 모든 나무를 대상으로 잘 자랄수 있도록 가꾸는 育林運動에 온國民이 主人意識을 갖고 스스로 參與해 줄것을 當付하였다.

가을철 산불조심 당부

山林廳 산불防止 綜合對策 狀況室 設置

올 가을에는 例年에 비해 몹시 乾燥하여 산불危險이 매우 높아 산불豫防活動과 對國民 弘報를 強化하기 위하여 '88. 11. 1부터 山林廳에서는 산불防止 綜合對策 狀況室을 設置 運營키로 하였다.

山林廳은 온國民의 精誠과 땀 흘려 가꾸어온 우리의 귀중한 山林資源을 一時的인 不注意로 산불을 일으켜 순식간에 아까운 山林을 불태우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88. 11. 1부터 산불防止 綜合對策 狀況室을 設置하여 산불豫防에 철저히 對備토록 했다.

특히 올가을에는 극심한 가뭄이 계속되어 어느해 보다도 산불 發生 危險이 크기 때문에 山林廳에서는 各市.道 및 營林署에 산불防止 特別 警戒強化 指示를 했다.

가을철 산불發生원인은

- 단풍놀이 登山등 入山者들의 野營, 모닥불 炊事行爲에 따른 火器 不注意 실화
- 山林연접 耕作地, 果樹園등에서 농사 廢棄物 소각에 따른 실화
- 월동 임산연료 및 산 약초 採取者등 生業關聯 入山者 실화
- 其他 정신질환자, 어린이 및 무숙행위자등 불씨 取扱 不注意 실화등이며 특히 11월 5일은 育林의 날이라 산을 찾는 사람이 급증할 것으로 보고 山을 찾는 사람들은 어느때 보다도 산불을 조심하여 줄것을 當付하였다.

헝사지는 입제

산지 제조제 탄생!

헝사지는입제는 조림목의 생장을 해치는 잡관목을 고살시키는 산림용 제조제입니다.

헝사지는는 잡관목을 고살시키지만 침엽수에는 안전합니다.

- 사용적기
 - 봄철해빙후(3월 중순~4월 중순경)토양수분이 많으며 지표식생이 없을 때 토양표면에 골고루 살포
- 사용방법
 - 지존(地拵): 처리지역의 잡관목이나 산약초류 그대로 둔 채, ha (3천평) 당 헝사지는입제 100kg 을 토양표면에 골고루 살포.
 - 하예(下刈): 침엽수 조림목 주위에 ha 당 헝사지는 입제 50kg을 골고루 살포.
 - 소나무천연하중갱신지: ha 당 헝사지는입제 50kg을 골고루 살포.
 - ★ 처리지역에 낙엽 등 피복물이 두껍게 쌓여 있는 곳은 약재 처리 전 피복물을 제거한 후 살포.

榮一化學工業(株) Tel. 555-0471

대기오염과 산성우가 산림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산림청 임업연구원에서는 요즈음 우리나라가 급격히 산업화 도시화 되면서 발생하는 대기오염과 산성우가 산림수목과 토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규명한 결과 울산 공단 지역의 산림은 오염되지 않은 지역에 비해 재적생장이 약 70% 정도가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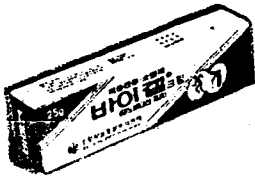
임업연구원에서는 대기오염과 산성우가 산림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키 위해 지난 '85년부터 올해까지 서울(동대문구 홍농 뒷산)과 공단지역(울산공단 주변임야) 및 산간지역(강원도 평창군산림)에 각각 시험 측정구를 설치 대기중의 SO₂(아황산가스) 농도를 측정한 결과 홍농의 12월-2월중 난방기에는 다소 높아질때도 있으나 평균치는 환경규제농도(0.05 PPM)의 2/3수준(0.034)이며 '86년 이후 계속감소되는 추세로 나타났다. 기타지역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소원인은 차량의 저유황유 사용에 의한 결과로 추정되며 산성우의 경우는 정상수준이 PH5.6이나 측정결과 홍농은 PH5.05이고 울산이 5.17로 상당히 산성화 되어있으나 평창은 정상이었다. 홍농의 경우를 보면 4.0 이하의 강산성우도 전체강우량의 3.5%나 되어 앞으로의 변화추이가 주목된다. 산성우에 의한 가지피해 산도는 침엽수종은 PH2.0 전후이고 활엽수종인 경우는 PH 3.0 전후로 알려졌다.

또 토양산도는 홍농이 PH 4.49, 울산이 PH 4.81로 크게 산성화 되어 있으나 평창은 PH 6.03로 정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대도시나 공단지역주변 산림토양은 상당히 산성화 되어 있는 상태로서 토양산도가 PH 4.0에서부터 양료성분 용탈이 급격히 증가되는 것을 감안할때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선 공장의 오염물질 배출을 억제하고 차량의 저유황유 사용을 적극 권장하며 산성우에 대한 저항성이 큰 곰솔, 소나무, 자작나무, 참나무등을 많이 식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료: 임업연구원)

“Indomethacin의 강력한 Prostaglandin 합성 억제작용으로 인한 소염·진통 효과는 Piroxicam이나 Naproxen제제와 동등하거나 더욱 우수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외용진통·소염제
바이겔 크림



草堂精品工業株式会社

본사: 서울·종로구 종로57가 36-1 전화: 741-1540, 743-6161/2
출장소: 부산 (051) 66-3747 대전 (042) 253-8580
대구 (053) 756-1833 전주 (0652) 75-8064
마산 (0551) 43-1923 광주 (062) 232-0701
원주 (0371) 42-8204

山林經營有感

本會理事 千 正 夏
(營林公社)

임업에 종사하면서 그동안 겪은 일 또는 생각나는 일 등을 순서없이 적어본다.

- 5~6년전 일이다. 임업계를 잠시 떠났다가 송충이는 솔잎을 먹으라는 운명인지 또 임업에 종사하기 시작한 그 이듬해의 일이다.

어느 군청 식수계장을 만나 이야기하던중 자기관내에 600여정보 소유한 山主가 그해에 50정보 조림을 했다고 하면서 군에와서 산림용 복합비료 배정을 요청해 왔다고 하길래 개인이 한해에 50정보 조림했으면 많이 했는데 배정이 끝나지 않았으면 배정을 좀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말하였더니 그 식수계장 말이 “자기 마음대로 조림해 놓고 군에와서 비료 달라고 한다”면서 화를 내는것을 보고 우리나라 林政에서 山主의 位置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山主의 위치는 오늘날도 어느 관청에 가도 항상 보고 또 당하고 있다.

- 代採跡地를 보면 산을 아끼는 사람이면 누구나 허전함을 느낄것이다. 하물며 심고 가꾼 山主의 마음이라 오죽하랴. 하루 속히 풀이라도 자라서 별경게 된 별채지가 감추어 지기만을 마음속으로 재촉하게 된다.

흉고직경 6cm미만은 벌채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또 벌채해도 쓸모가 없기 때문에 벌채하지도 않는다. 꾸부러지고 부러진 잔존목은 벌채적지를 더욱 살벌하게 한다. 그래도 저것이 나중에 나무구실을 할거라고 희망을 가지고 귀엽게 보고 있는데 군청 담당직원이 보기 흉하다고 전부 베어내라는 엄명이 떨어졌다. 지금은 보기가 흉해도 몇년간 지나면 자리가 잡혀서 보기도 괜찮을꺼라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통하지 않는다. 나중에는 감사에 지적된다고 아우성이다. 할수 없이 일부분만 마음에 내키지 않지만 군청직원의 소원을 덜어주었다. 5년후의 결과는 불문가지로 보잘것 없었던 잔존목들이 자리를 잡아 인공조림을 한곳보다 비교가 안될정도로 월등이 좋은 임상이 되었다.

이것은 천연치수를 가꾸는 것이 얼마나 더 경제적이고 산림이 잘 조성될수 있다는 산 교훈이다. 일률적인 규정에 역매인 행정조치 보다는 기술적인 판단하에 벨곳은 베고 그대로 가꿀곳은 가꿀수 있는 융통성 있는 행정조치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나 혼자만의 생각은 아닐것이다.

힘모아 가꾼산림 산불막아 보존하자

- 可視地域이란 鐵道, 國道, 高速道路 또는 觀光地等에서 보이는 곳은 美觀을 해치지 않도록 하기위하여 벌채나 토석채취등을 제한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던 용어일뿐 법 정용어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어느 군에서는 벌채나 面소재지에서 산골로 24 km들어간 막다른 산골짜기에서 보이는 곳은 모두 가시지역이라면서 벌채를 금지한 일이 있었다. 그 부당성을 들어3년간 투쟁(?) 했지만 결과는 허가권자의 말이 법 이 되고 말았다. 山主가 법이나 규정을 앞세워 권리를 찾는다는 것이 잘못이구나 다시 한번 깨달았다. 지금도 그 군에서는 말끝마다 가시지역이고 그렇게 행정하고 있다.
- 근래에는 법과 규정이 필요치 않는 행정을 본적이 있다. 법이니 규정이니 하는것 은 아예 논하지도 않고 들을려고도 하지 않는다. 인가된 영림계획을 3월에 사업 신고(벌채)하였더니 나무에 물 오를때가 되어서 안된다는 것이다. 원료조달의 긴급 성, 산주의 사업상 부득이한 사정, 사유림 입목벌채 실시요령등을 들어 간곡히 간 청하였으나 무조건 안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가을에 하란다. 할수 없어서 8월하 순에 9월 1일부터 시업하겠다고 신고하였더니 지금은 더워서 현지답사를 못하고 또 숲이 우거져서 산을 옹게 볼수 없다면서 좀 있다가 하란다. 울화통이 터져서 병이나고 말았다. 행정은 관련사업을 육성해야지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행정이 되어 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든다.
- 國家木이란 글자만 보아도 國有林木이란 뜻일게다. 1959 년도에 조림대부를 받아서 1980 년도에 분수림으로 전환하여 분수림 설정계약을 도지사와 체결하였다. 계약서에는
 - ㉞ 설정기간만료 또는 수익분배시까지 존치할 입목은 “없음”으로 되어있고.
 - ㉟ 수종갱신 또는 지장목으로 제거할 입목은 108,400본 1,648 ㎥으로 계약체결되 어 있다.
 1988년 6월 당해 군수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공문이 왔다. 당사 분수림 (1,194 ha) 내에 國家木이 23,093 ㎥ 있으니 이의가 있으면 이의 신청하란다. 계약상 ㉞호의 수량은 대부당시의 수량이기 때문에 수종갱신 또는 지장목으로 이미 제거하고있고 ㉟호의 존치할 입목이 국가목인데 당사는 없는 것으로 확정계약 되었기때문에 당 사 분수림내에는 국가목이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이의 신청을 하였다. 군에서 또 공문이 왔다. ㉟호에 국가목수량이 명시되어 있으니 국가목조사에 입회하고 만 일 불응시에는 군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거 국가목 수량을 확정하겠다는 것이다. 대부당시에 명확하게 조사구분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지 30년이 지난 지금와서 30년전 대부당시 흉고직경 6cm 이상되는 나무를 찾아서 국가목으로 확정하겠다는 것은 무리한 행정이란 생각이 든다.
- 造林貸付林-우리 임업계에 풀리지 않고 있는 응어리의 하나가 바로 造林貸付林의 讓與向題이다. 조림이 성공하면 “양여할 수 있다.”라는 법조항때문에 양여를 받으 려고 조림을 했다손치더라도 황폐한 산림에 투자할 용의를 가진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임업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다.

임업발전에 가장 큰 저해요인이 국민의 산림투자에 대한 무관심이 아닌가 생각

할때 국가에서 조림 성공한 대부림을 약속대로 양여를 하지 않는 것은 임업에 관심있는 국민들을 무관심으로 전환시키고 심지어 산림행정을 불신케 한것은 임업 발전을 위해서 얻는것 보다 잃는것이 더 많다고 생각된다.

임정당국에서는 양여를 중단한 것이 적법한 조치라고 하겠지만 현행법상 조림성공한 대부림을 양여한다고 해서 위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양여를 중단해도 적법이고 양여를 허용해도 적법한 조치라면 국민에게 유리한 방법 (적어도 국민이 피해를 보지 않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행정 아닌가 생각한다.

- 分收林에는 처음부터 수확을 나누기로 한 分收林과 앞에서 말한 조림대부림을 분수림으로 전환설정한 分收林으로 구분된다.

후자의 경우 분수를 목적으로 조림대부를 받았다고 보다는 양여를 받아서 영구적으로 산림경영에 뜻을 두고 내 산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부를 받아 조림했다가 정부의 대부림양여중단 조치와 아울러 분수림으로 전환 설정할것을 종용하여 분수림으로 설정한 사람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설정된 분수림계약에 보면 국유림과 사유림경계의 꼭점마다 경계표주를 설치하도록 되어있다. 그 꼭점을 찾으려면 측량을 해야하고 그 넓은 오지림에 측량을 할려면 측량비용이 임야가격 보다 더 많아질것이다. 경계표주가 분수림 경영에 필수불가결한 사항도 아닌데 수대부자가 실행하기 극히 어려운 사항을 수대부자의 의무로 부여해 놓고 계약이행을 촉구하고 있는 실정이라 머지 않아 수대부자는 계약불이행으로 분수림설정도 해약당할 위기에 놓여있다.

경계표주가 국유림관리상 꼭 필요하다면 땅 주인인 국가가 설치해야지 대부료내고 조림해서 무욕하기로 계약한 조림대부림을 산림정책에 순응하기 위하여 분수림으로 전환설정한 수대부자에게 경계표주설치를 의무화한 분수림 설정계약조항은 당초 조림대부목적 이외의 사항으로서 원인 무효라는 생각이 든다.

양여받아서 국가목이다. 경계표주다 하면서 정부의 무리한 행정때문에 수대부자는 기진맥진하고 있다. 이러한 무리한 행정으로 산림경영에 뜻을 둔사람들이 억울한 피해가 없도록 배려 있기를 기대한다. — 차호에 계속 —

山林經營用語

- 保續作業 : 連年作業이라고도 하며 每年 收穫量이 있도록 하는 經營方式, 그렇지 못한 作業을 間斷作業, 隔年作業이라고 한다. 每年의 一定한 收穫量이 一定한것을 嚴正保續作業이라 한다.
- 複層林 : 林相이 單純一濟林이 아니어서 樹冠層이 2~3層으로 뚜렷이 구별될수 있는 林相으로 구성된 山林

자작나무類 (자작, 물박달, 사스레 나무)

임업연구원 김 종 원

1. 특 성

자작나무류에는 물박달나무, 사스레나무, 거제수, 개박달나무, 자작나무, 박달나무등이 있으며 심산오지의 고산지대에서 자생한다.

수피가 백색으로 종이와 같이 얇으며 잘벗겨지며 생장이 빠르나 공해에는 다소 약한 편이다. 목재는 나이트가 뚜렷하지 않고 재색은 황백색 또는 옅은 황갈색이며 나무결이 곧고 연하여 휨성이 좋고 갈라지거나 비틀리지는 않으나 내부성(耐腐性)이 약하다. 재색이 깨끗하고 조직이 치밀하며 표백이 잘되어 합판과 펄프재 재료로 적당하다. 합판, 가구, 기구, 기계, 조각, 방직목관, 단판등으로 쓰이고 잎은 염료로, 나무껍질은 치장재료로 쓰인다.

2. 적 지

자작나무는 전국적으로 조림이 가능하며 약간 건조한 비옥지에서 잘자란다. 일반적으로 건조지에 대한 적응력이 강해서 참나무류, 음나무, 서어나무등과 혼생되어도 잘자란다.

3. 種子採取

種子採取는 9월에 毬果를 採取하여 햇볕에 말린후 체로치거나 風選하여 氣乾貯藏하였다가 播種 1個月前에 露天埋藏한다.

자작나무類 種子品質

樹 種	純 量 率	容 積 重 (1 ℓ當)	實 重 (1,000粒當)	粒 數		發 芽 率	效 率
				1 ℓ	1 kg		
	%	g	g	粒	粒	%	%
자 작 나무	78.5	78.91	0.15	510,724	6,470,195	14.4	13.2
물박달나무	56.9	140.87	0.66	237,183	1,683,701	12.2	6.9

4. 養苗施業

3月下旬-4月上旬에 上床을 만들어 잘 다지고 露天埋藏한 種子는 그대로 뿌리면 되나, 乾燥貯藏한 種子는 24時間 물에 浸漬시켰다가 m 當 4.2g (0.05 ℓ)의 種子를 細砂와 混合하여 뿌린다. 覆土는 고운체로 흙을 쳐서 種子가 묻힐정도로 얇게덮는다. 種子가 細粒이므로 灌水는 분무기로 철저히 해야하고, 發芽苗가 極히 작으므로 除草할때 細心한 注意를 要한다. 숙으기는 4-5회로 나누어하는데 最終 殘存本數는 m 當 81本을 남긴다. 이듬해 掘取하여 幹長 40cm以上, 根元徑 6.0mm以上 되는 規格苗는 1-0 苗로 山出하고 規格未達苗는 m 當 64本씩 移植하여 1-1 苗로 山出한다.

5. 조 립

2년생 (1-1) 묘목을 식재하는데 자작나무는 초기생장이 빠르므로 비육지는 헥타당 2,000-2,500 본을 식재하고 건조지는 3,000 본을 식재한다. 식재전 땅고르기 작업은 전면작업을 해야하며 인력으로 하는 것보다는 제초제를 살포하는 것이 경비와 인력이 절약되고 사후관리도 쉽다.

6. 풀베기

조림후 3년간 2회씩 전면 풀베기로 해야하며 제초제로 땅고르기 한곳은 2년간 풀베기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3년차에 한번만 해준다.

7. 잡목숙아베기

풀베기작업이 끝난후 3-5년이 되면 칩덩굴과 맹아가 무성하게 되므로 잡목숙아베기와 덩굴치기를 실시한다. 제초제를 살포하여 땅고르기 한곳은 맹아목과 칩덩굴이 거의 없으므로 생략할 수도 있다.

8. 가지치기

자작나무는 가지치기를 하면 벤자리가 썩기 쉬우므로 밀도를 높혀서 자연낙지(自然落枝)가 되도록 유도한다. 그러나 너무 큰가지가 생기면 자연낙지가 없으므로 이와같은 경우는 가지의 중간을 잘라주어 가지의 세력을 약하게 하면 자연낙지가 쉽게 된다.

9. 간 벌

나무가 울폐되어 밑가지가 마르기 시작하고 경쟁이 일어나서 우세목과 열세목이 생기면 간벌을 실시하는데 1차간벌은 10-15년에 불량목, 피압목(被壓木)을 제거하고 5-10년 간격으로 2-3회 실시한다.

10. 생 장

생장은 상수리나무와 비슷하며 재적은 50년생의 경우 헥타당 168 m^3 정도가 된다.

오리나무 잎벌레

1. 가해수종

오리나무류, 박달나무등

2. 가해상태

- 유충과 성충이 다같이 잎을 먹으며, 유충은 잎살만을 먹고 잎맥을 그물모양으로 남기나 성충은 주일맥만 남기고 갉아 먹는다.
- 나무의 아래쪽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잎을 가해하며, 환경조건이 나쁜곳에 피해가 해마다 거듭되면 고사하는 경우도 있다.

3. 생활사

- 1년에 1회 발생한다.
- 성충은 4월하순부터 어린잎을 식해하며, 5월중-6월하순에 오리나무잎 뒷면에다 60입내외씩 알을 무더기로 낳는다.
- 암컷 한마리의 산란수는 300개 내외이며 알 기간은 11-12일이다.
- 부화당초의 유충은 잎뒤에서 머리를 가지런히 하고 병렬하여 잎을 가해하다가 성장하면 나무전체에 흩어져서 가해한다.
- 성숙한 유충은 6월하순-7월하순 사이에 땅속으로 들어가 번데기가 되며, 번데기의 기간은 약 2주일 내외다.
- 7월중순부터 우화한 성충은 잎을 식해한 후 8월하순부터 지표에 떨어져 지피물 또는 흙속에서 익년도 4월중순까지 성충으로 월동한다.
- 생활경과표

월별 상태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성충	—월	동 →										
알					←	←	←					
유충						←	←	←				
번데기							←	←	←	←	←	←
성충											월	동 →

4. 방제방법

(1) 약제살포

5 월하순 - 7 월하순까지 유충가해기에 다음과 같이 약제를 살포한다.

약	종	ha 당 사 용 량	희 석 비 율	사 용 장 비
싸 이 스 린 액 제	50 %	500 ml	2,000 배	항 공 기 . 분 무 기
주 톤 수 화 제	25 %	166 g	6,000 배	"
디 프 수 화 제	80 %	670 g	1,000 배	"

(2) 성충포살

월동한 성충이 어린잎을 식해하고 있는 4 월하순 - 6 월하순과 새로나온 성충의 가해기인 7 월중순 - 8 월하순 사이에 성충을 포살한다.

(3) 알덩이 제거

5 월중순 - 6 월하순 사이에 성충이 잎 뒷면에 수십개씩 낳아놓은 알덩이가 붙어 있는 잎을 제거하여 소각한다.

(4) 유충포살

5 월하순 - 6 월하순까지 사이에 부화초기 유충은 잎 뒷면에서 군서하고 있으므로 군서유충을 포살한다.

本會 海外 林業視察團

· 대상국 : 뉴질랜드, 호주, 인도네시아 · 기간 : 1988. 11.16 ~ 12. 1.

團 長	모범독립가	崔 延 雨	團 員	모범독립가	이 규 현
幹 事	본회전무이사	崔 東 均	"		이 덕 용
團 員	전주제지분	김 지 곤	"	모범독립가	이 용 호
團 員	대성탄좌(주)	윤 주 국	"		임 주 빈

林業界消息

○ 각도 임정간담회개최 : 산림청은 육림의날을 계기로 범국민적인 육림 분위기를 조성하고 산림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도별로 지역특성에 맞는 임정간담회를 갖도록 지시하였는데 독립가, 산주, 산림조합관계 공무원등이 참석하여 산지자원화 정책방향 설명과 당면과제를 토의하게 되는데 본회회원 여러분들은 가급적 많이 참석하여 의견제시를 하여 줄것을 바랍니다.

○ 故 香山 玄信圭博士 銅像除幕式 : 故 玄信圭博士의 二周忌를 맞이하여 88.11.19 12:00 에 光陵山林博物館 앞뜰에서 記念銅像除幕式이 있을 預定 .

訃 音

○ 前 農林長官 鄭在高氏 : 林業界元老人士로서 前 農林部長官과 韓國林政 研究會長을 역임한 바 있는 鄭在高氏가 4일새벽 孝昌洞 自宅에서 87才를 일기로 他界 하심.

結 婚

○ 本會理事 權五振 (西海開發 代表理事) 氏의 차남 光植군의 結婚式이 11月 19日 12:30 에 木花禮式場에서 있음.

< 協會費 納入案内 >

- 計座番號
- 조 흥 은 행 : 397-1-002092
 - 서울신탁은행 : 19501-84009872
 - 농 협 중 앙 회 : 001-01-025926
 - 국 민 은 행 : 093-24-0025-624
 - 우 체 국 : 011809-0014780-12

※ 입금하실때 송금자 성함을 꼭 명기하여 주세요.

등산길 산불조심 하산길엔 오물수거

담배꽂초 작은불씨 금수강산 불태운다